

<2021년 2월 5일 금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하나님과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. 기도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. 이 두 가지가 <신앙의 무장>이 되고, <신앙의 기본>이 된다.
2.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, 우리의 기도도 기도로만 끝나지 않는다. 말씀하실 때,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대가로 반드시 역사하신다.
3. 사랑하는 애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으면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.
4. 과거에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역사해서 주셨고, 이 주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. 안 주셨다면 현재에 있을 수가 없다.
5. 찬양하는 것,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크나큰 일이다. 그래서 늘 찬양을 해야 한다. 특히 하나님이 주셔서 시대 주로 부르께 한 곡들을 자기도 자꾸 불러야 한다.
6. 새들도 노래를 잘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있으니 잘 하든 못 하든 무조건 한다. 이와 같이 우리도 노래를 잘 하든 못 하든 해야 한다. 안 하면 은혜가 없다.
7. <기도>와 <말씀>과 <찬양>이다.
8. 기도와 말씀만 하고 찬양이 없으면, 예술성이 없으니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.
9.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다. <찬양>하는 것이 <감사>하는 것이

다. 하나님께 물질로 매일 드릴 수 없으니 찬양으로 한없이 무한히 하면 된다.

10. 매일 그때그때 감사하고 노래해라. 감사해서 노래한 자는 다른 날에 감사할 것, 찬양 할 것이 또 온다. 이러한 삶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.
11.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며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. 이는 마치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를 감독이 쳐다보며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격이다.
12. 우리가 실력껏 잘 하면 이기지만, 실력을 다하더라도 지기도 한다. 고로 잘하려면 기술을 자꾸 익히고, 실수를 안 하도록 계속 반복하기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도 하시지만, 이길 수 있게 도우신다.
13. <기도와 말씀>은 기본이다. 항상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출발해야 한다.
14. 주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나가서 실천하면, 주인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.
15. 하나님이 주인이시고, 성령님이 주인이시고, 성자가 주인이시고, 주님이 주인이시다. 먼저 <기도>로 말씀을 드리고, 그다음 무엇을 <말씀>하시면 그에 해당되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야 한다. 실천하면서 좋아서 <찬양>도 부르고, 또 실천할 때 받으면 <감사>도 하는 것이다.
16.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,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 대로 하나님은 돕고 역사하신다. 이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기대가 어긋

난다. 고로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. 이것이 곧 무장이다.

17. <말씀>은 마치 ‘무기’와 같고, <기도>는 무기 속의 ‘실탄’과 같다.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닌다. 화살을 가지고 활을 쏘아서 잘 맞으면 기뻐서 <노래>가 나오고, 잘 맞으면 감격해서 <감사>가 나온다.
18. 하나님께 “무엇을 해드릴까요?” 물으면, 하나님은 말씀하시길
 - 첫째는 회개하라.
 - 둘째는 감사하라.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었고,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대의 주를 만났다고 감사하라.
 - 셋째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,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하라.
 -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하라.이 말씀은 순금 같은,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이다.
19. 하나님이 선생에게 “조금 더 하라.” 해서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말씀을 쓰니 50장의 말씀을 받았다.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.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로 말씀한 것을 실천하면 바로 주신다.
20. <조금 더>가 엄청난 것을 좌우한다. 이 말씀 속에는 ‘땅의 것’도 들어있지만 ‘하늘나라의 것’도 많이 들어있다.
21.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, 이 네 가지를 꼭 해라.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“조금 더 하라.” 하신다.
22. <자기> 혼자서는 안 된다. 혼자서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. 반드시 <주>가 기도를 해주어야 한다.

23.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새 시대 말씀을 받을 수 없다.
그러나 새 시대로 오면 주가 가르쳐주니 말씀을 바로 받는다.
24. <주>도 혼자는 안 된다. 말씀을 가지고 왔으면 <듣는 사람>이
있어야 한다.
25. 독수리가 사냥할 때 어미 독수리가 나서서 과감하게 사냥을 하
면 새끼들도 같이 해야 한다. 이와 같이 주와 따르는 자들이 같
이 해야 한다.
26. 같이 해야 일이 된다.
27.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. 고로 하늘의 삼위가
다 해도 안 되고, 땅의 육신이 혼자 해도 안 된다.
28. 땅과 하늘, 머리와 대상들, 주와 따르는 자들이다.
29. 새벽에도 주일 못지않게 깊은 말씀이 나간다.
30. 주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. 기도해서 돕고 계심을
알아라.

<기도>

31. 이 시대의 갑주를 입어라. 그래야 이 시대의 전쟁에서 무기를 피
할 수 있다.
32. 옛날 식 가지고는 죽는다. 이 시대, 새로운 시대 식으로 하라.
33. 기도하였으니 정녕코 주시는 하나님이시다. 지금도 주시고, 과거

도 주시고, 미래도 주시니 반드시 예비하고 행하라. 예비하지 않고 행하면 그날이 덧과 같이 오리라. 어려움이 올 때 막을 수 없으리라. 항상 예비하라.

34. 옷을 깨끗이 입어라. 육신도 그러하고 영혼도 그러하다. 행위대로 하나님은 옷을 입히노니 행위대로 간다.

35. 하늘나라는 옷 입은 대로 가서 있다. 옷 입은 대로 그 나라를 차지하리라. 황금천국 가려면 휴거된 옷을 입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느니라.

36.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옷을 입었으니, 감당하며 더럽히지 말고 열심히 해라.

37. 악착같이 하라. 주가 해주니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.